

구절초 꽃망하며 심신 치유... 정읍에서 '가을 낭만'

내일부터 15일까지 꽃축제... 15만㎡ 공원 꽃열차·족욕 등 체험 다채
먹거리·농특산물장터 운영...꽃사진 공모전·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도

'전라북도 제1호 지방정원'인 정읍 구절초공원에서 올해도 어김없이 화려한 자태의 구절초와 함께 하는 축제가 열린다.

정읍시는 오는 5일부터 15일까지 산내면 구절초공원에서 '제16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가 열린다고 3일 밝혔다.

15만㎡ 면적의 구절초공원은 매년 가을 물러든 전국의 관광객들이 울창한 소나무와 그 아래서 어우러진 화려한 구절초 풍경을 즐기며 가을의 낭만과 추억을 담아가는 곳이다.

지난 2006년 조성 이후 매년 5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꽃여행의 명소로 정평이 난 곳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자연풍광에 '솔숲길', '꽃열차', '정원 만들기', '구절초 족욕' 등의 정원향유형 체험 프로그램이 건강과 치유를 위해 결합되며 각광을 받고 있다.

'구절초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전문 DJ가 진행하는 '사랑의 방송곡',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한마당 공연', 사진 무료 인화 서비스 등 서정적인 프로그램

그림들은 심리적 힐링까지 선사해 준다.

이 외에도 시외의 사전협의를 거쳐 준비된 주민들의 먹거리장터와 농특산물장터에서는 정읍의 맛과 신선 농산물까지 만나 볼 수 있으며 바가지요금도 걱정이 없다.

주말이나 휴일에는 관광객 몰리며 교통이 혼잡할 수 있지만 산내면 소재지에서 축제장까지 도로의 경우 기존 도로를 우회도로화 한 새로운 직선도로가 생기며 접근성 역시 한결 좋아졌다.

축제 개막식은 8일 오후 5시로 예정됐으며 무대를 화려하게 빛낼 축하공연에는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김다현을 비롯해 7080감성음악의 대표가수 박강성이 출연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구절초의 아름다움은 풍경에 정읍의 맛과 편안한 교통, 넉넉한 인심을 느끼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가을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맘껏 담아가는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지난해 '제15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 풍경.

문화체육 김동식·공익 박인수·산업근로 김정욱·애향 백홍중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 4명 선정



왼쪽부터 문화체육장 김동식, 공익장 박인수, 산업근로장 김정욱, 애향장 백홍중씨.

고창군이 남다른 애향심과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김동식씨 등 4명을 제39회 고창군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군민의 장 수상자로는 문화체육장 김동식(73)씨를 포함해 공익장 박인수(60), 산업근로장 김정욱(58), 애향장 백홍중(55)씨가 각 부문 수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1985년에 처음 시작된 군민의 장은 지난해까지 총 38회에 걸쳐 167명의 영예로운 수상자를 배출했다.

문화체육장 김동식씨는 자연환경해설사로서 1950년 고창읍 도산에서 태어나 30여년을 후학양성에 힘을 쏟았다. 죽음을 앞둔 이들을 위해 소망호스피스라는 단체를 만들어 봉사하였으며, 교양의 기회를 농민 이들을 위해 야학을 운영하는 등 고창군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공익장에 선정된 박인수씨는 두영조명(주) 대표

이사로서 고창 발전을 위한 활발한 기부활동과 고창 농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매 활동에 기여하였고, 향우회 활동으로 애향심을 고취시켰다.

산업근로장에 선정된 김정욱씨는 고수농공단지 소재 연경전자 대표로서 고창군 취약계층 고용 및 인재 육성에 공헌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업 분야의 지역산업 발전에 노력했다.

애향장에 선정된 백홍중씨는 한국방송공사 촬영감독으로 고창의 주요 관광명소와 아름다운 지역경관을 촬영해 KBS 9시 뉴스 시보 송출, 각종 드라마 촬영장소로 고창 선정, 수년간의 촬영 경험을 토대로 강사로 활동하면서 지역 후배 양성과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은 오는 23일 고창군 군민의 날에 군민의 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자 年 최대 100만원 지원

혼인신고 5년 이내·거주 6개월 이상...이달말까지 신청 접수

정읍시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최대 100만원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준다.

정읍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2023년 하반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의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1% 최대 100만원이며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자녀 수, 거주기간, 장애등록 여부, 부양가족 여부, 나이, 다문화가정 여부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11월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 등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와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이달 4-31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신혼부부의 지역정착과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층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18일까지 농가 1080호 대상...항체형성 기준치 미달 땀 과태료

남원시가 하반기 소와 염소에 대한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

남원시는 구제역 청정지역을 유지하고자 4월부터 18일까지 지역 1080호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5300마리에 대해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진행한다.

소 5마리 미만, 염소 50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는 공수의사가 동원된 무상접종으로 진행된다. 또 소 50마리 이상 농가는 남원축협 동물병원에

서 백신을 구입해 농장주가 직접 접종해야하고 염소 500마리 이상 농가는 시에서 무상 공급한 백신으로 농장주가 직접 접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는 일제접종 기간 종료 후 농장의 항체양성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항체양성률 기준은 소 80%, 염소 60%이다. 기준치 미만의 항체형성률이 나온 농가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항체형성을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올해 구제역이 국내에서 11건이나 발생했다"며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단 한곳의 농가도 빠짐없이 일제접종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